

20RI

20th ANNIVERSARY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1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소리
#20

2021.9. 29. - 10.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주최  **전라북도**
JEONBUK DO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협찬  **전북은행**
Jeonbuk Bank

세 계 를 품 어 미 래 를 보 니 다

소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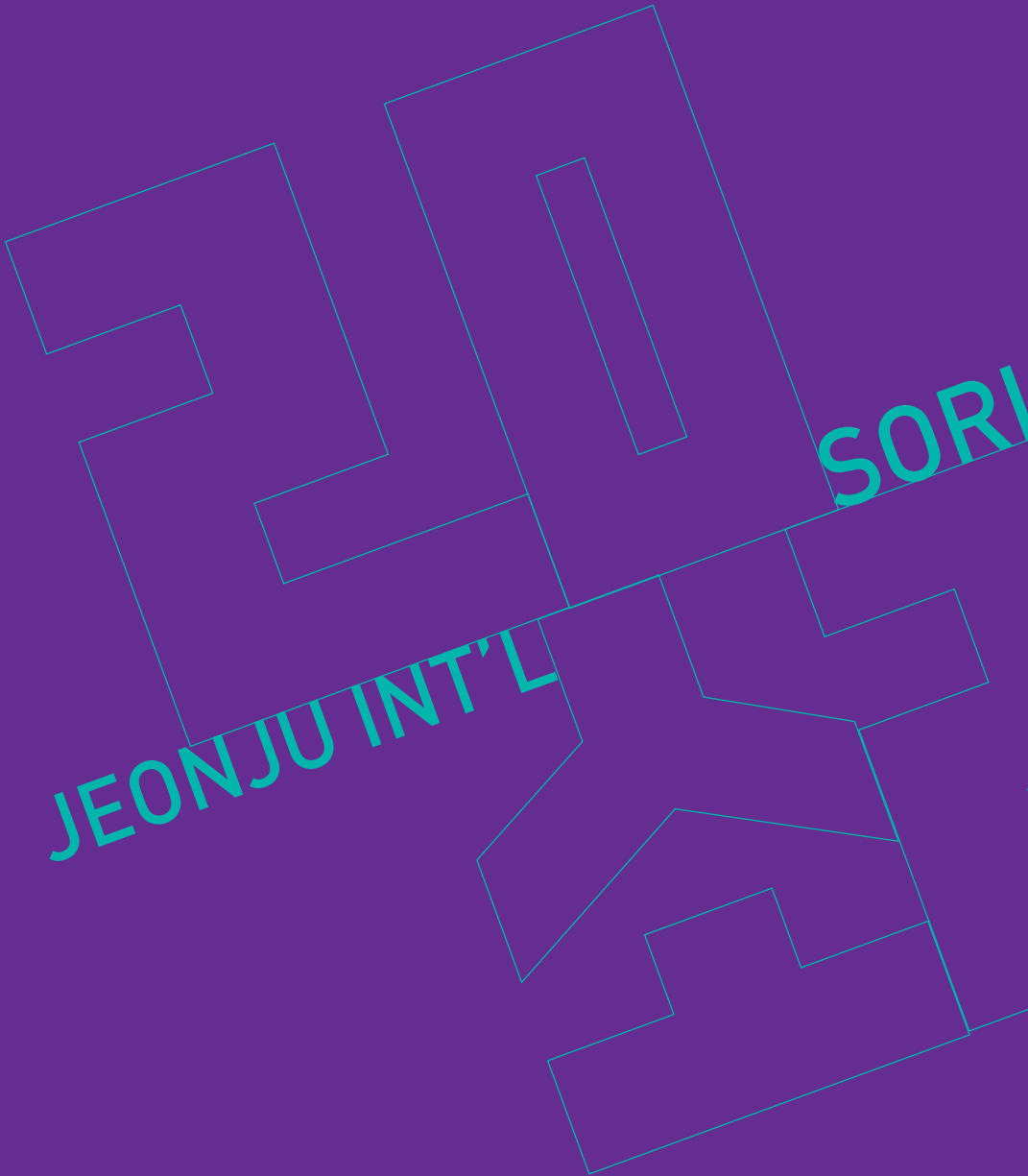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주제어 '소리 #20(SORI #20)'은 축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노래를 통한 희로애락을 예술로 승화해 온 인류의 역사, 소리축제의 역사를 미래, 변화, 희망의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축제 20년의 데이터를 활용한 과거와 미래의 교차, 축제 20년의 성과의 예술적·사회적 기여, 지역 예술역량에 대한 총화와 재발견 등을 널리 알려 새로운 미래 축제 20년의 분기점을 마련한다.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일정

09.29(수)	09.30(목)	10.01(금)	10.02(토)	10.03(일)
₩ 19:00 SNAP meets Sori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연지홀	₩ 11:00 SNAP meets Sori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연지홀	₩ 19:00 산조의 밤 지순자, 강정숙 명인홀	13:00~16:0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 14:00 판소리다섯바탕 적벽가(보성소리) 윤진철 연지홀
19: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TALE'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명인홀	18:40 광대의노래 '사금(四金)'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19:00 해설이 있는 수제천 (사)정읍수제천보존회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 15:00 판소리다섯바탕 수궁가(추담제) 김세미 연지홀	₩ 15:00 아스토르 피아줄라 쿼넷 모악당
19: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여기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한사코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19: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풍각쟁이' 소리극단 도채비 명인홀	₩ 19:30 다크니스 품바 (안무 김재덕) 연지홀	₩ 17:00 국립현대무용단 'HIP합' 모악당	15: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놀부 FLEX' 휠러스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ON		ON		
19:30 20주년특집 개막공연 RE:Origin 모악당	₩ 19:30 전주세계소리축제 X전북CBS '별빛콘서트' 모악당	20:30 강허달림, 전주를 만나다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18: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이름' 비로소 판소리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17: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심청:꽃을 든 여인' 민속악회 맴돌 명인홀
	ON			
20:30 선우정아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20:30 판소리다섯바탕 춘향가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19:00 소리프론티어 시즌2 '햄릿, 혼잣말' 플레이워드 명인홀	17:00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ON	
			19:30 판소리다섯바탕 흥보가 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권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 18:00 판소리다섯바탕 심정가(동초제) 송재영, 장문희 연지홀
				ON
				19:30 페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열전) 야외공연장 특설무대

Contents



FESTIVAL

- 08 전라북도지사 축하
- 09 조직위원장 인사말
- 16 [공식행사] 개막공연 RE:Origin
- 22 [기획공연] 판소리다섯바탕
- 28 [기획공연] 젊은판소리다섯바탕
- 30 [기획공연] 소리프론티어 시즌2
- 34 [기획공연] 산조의밤
- 36 [기획공연] 광대의 노래 사금(四金)
- 38 [초청공연]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 40 [초청공연] 국립현대무용단 HIP합
- 42 [초청공연] 다크니스품바
- 44 [초청공연] SNAP meets Sori
- 46 [초청공연] 선우정아
- 47 [초청공연] 강하달림, 전주를 만나다
- 48 [초청공연] 해설이 있는 수제천 (사)정읍수제천보존회
- 49 [초청공연]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 50 [초청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X전북 CBS 별빛콘서트
- 52 [공식행사] 폐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음악열전
- 56 찾아가는 소리축제
- 58 스태프/제작진

희망의 빛을 밝히는 따뜻한 은행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고객님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따뜻한 은행,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스무살의 전주세계 소리축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지나온 스무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스무 해를 기대합니다.

20th anniversary video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is year, marking its 20th anniversary,
2021 Jeonju Int'l Sori Festival
is looking back on the footsteps of the
past 20 years, and looking forward to
the next 20 brilliant years ahead.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20RI
20th ANNIVERSARY
JEONJU INT'L SORI FESTIVAL



▶ 20주년 기념영상





전라북도민의 크나큰 자긍심

문화 향유의 기회 확장

평안함과 쉼을 선사하는 풍요로운 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세계의 소리를 연결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이끌어오신 김한 조직위원장님과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스무 해를 맞이하게 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제 도민들에게 크나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예술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굴곡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듯, 코로나19의 시련 역시 우리 모두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세계소리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제의 형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현장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연 횟수를 줄이는 대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정성과 의미를 새기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40여 회 공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수도 높고 매혹적인 전통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 공연들과 예술 행사들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로 인해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도민의 일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방역의 파수꾼임을 인지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29.

Sori, a festival for the world, Overwhelming pride of Jeollabuk-do, Rich with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e, It's a festival that brings peace and relaxation.

Nice to meet you, everyon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hich connects our traditional music with all kinds of sori around the world, is going to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I give generous applause to Kim Han, commissione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festival officials who have led the festival despite difficult conditions.

The JISF, which has already entered its 20th year, is now becoming a great pride for the citizens of the provinc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many of you who have taken the leading role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 world. Just as the ups and downs you meet in life create a sense of maturity in yourself, the ordeal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also made all of us stronger. Following last year, this year the festival is designed to proceed online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and to capture the stories of the site abundantly. Though reducing the number of performances, we have worked hard to engrave our sincerity and put great meaning into each program.

There will be a tour of 14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with more than 40 performances, which will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xperience the pure and fascinating traditional scent.

Jeollabuk-do i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to enrich the lives of its residents. By supporting various cultural performances and arts events, we are striv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which will make for a peaceful and restful daily life for the citizen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hosting the 2021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I hope that, based on your experience, your festival will become a world-class cultural and artistic one, beyond Korea.

In addition, please recognize that we ourselves are guards of quarantine and join us in thorough compliance with quarantine rules. Thank you.

September 29, 2021



20주년 맞이한 전주세계소리축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시대를 이겨낸 축제를 고민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대를 이겨낸 축제의 모습을 고민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20년간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 온 만큼, 올해도 소리축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연결하는 전령사로 여러분 곁에서 호흡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 특집 개막공연 [RE:Origin]에서 축제와 얽힌 다양한 사연을 품은 20여명의 패널을 무대로 모십니다. 그동안 소리축제의 무대를 다채롭게 빛내준 예술인들과 축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가진 평론가, 축제를 만들어 온 사람들, 그리고 '찐 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서사를 풀어냅니다. 지난 축제의 20년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축제의 20년을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기획으로 매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판소리다섯바탕', 판소리 중심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소리프런티어 시즌2', 국립현대무용단 HIP합, 다크니스 품바 등 눈길을 사로잡는 무용작, 올해 축제의 유일한 해외팀 '하스토르 피아졸라 콰텟'까지. 실내공연 중심의 알짜배기 공연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소리축제는 올해도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용기 있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축제, 어려운 상황 틈새로 위로와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29.

At the 20th Anniversary,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inks over the Festival to Overcome the Hard Times Crossing over what has Changed and what Remains Unchanged.

Amid the continuing uncertainty of COVID-19,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been in deep agony over how to overcome the present hard time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no one can predict what will happen and everything changes rapidly, we have considered what's changing, what's not changing, and what we should keep.

And this year, the festival has reached its 20th anniversary. It's a time when we have to become equipped with wisdom more than ever. This year, as we have been doing our best to show the best stages in any environment for the past 20 years, Sori Festival will continue to breathe next to you as a messenger that connects traditional music and world music without losing its original intention.

Particularly, this year, about 20 panels with various stories related to Sori Festival will be invited onto the stage at the special opening performance of the 20th anniversary 'RE: Origin'. From the artists who have shined on the stage of the Sori Festival in various ways, critics with various perspectives on it, those who have created it, and 'real fans', they will unravel a variety of narratives. It will be a meaningful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20 years of the festival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20 years.

From 'Five Bangs of Pansori', which are continuing to sell out with various plans, 'Sori Frontier Season 2' who discover and support Pansori-oriented creative works, the eye-catching dances of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HIP HOP and Darkness Pumba, to Quinteto Astor Piazzolla who are the only overseas team of this year's festival, we have devoted ourselves to preparing the best indoor-centered performances.

This year, Sori Festival, once again, courageously takes the next step in difficult times. A safe festival is our first priority, and further, we'll do our best to present you with comfort and joy to convey you through the difficult situations. I hope we can meet both at the scene and online. Thank you.

September 29, 2021

09 29

| 수요일

Sep.29(Wed)

19:00 ₩

연지홀
Yeonji Hall



SNAP meets Sori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meets Sori

19:00

명인홀
Myeongin Hall



소리프론티어 시즌2
'TALE'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Sori Frontier Season2
BADAKSORI TALE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소리프론티어 시즌2
'여기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한사코

Sori Frontier Season2
Hansako
Stay here for a while, then go back

ON

19:30

모악당
Moak Hall



20주년특집
개막공연 RE:Origin

A special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pening Performance

20: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선우정아

SWJA
(Sunwoo Junga)

09
30

| 목요일

Sep.30(Thurs)

11:00



연지홀

Yeonji Hall

SNAP meets Sori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meets Sori

18:4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광대의노래
사금(四金)

Song of Masters

19:00

명인홀

Myeongin Hall

소리프론티어 시즌2
‘풍각쟁이’
소리극단 도채비Sori Frontier Season2
Sori Art Company Dochaebbee
Punggakjaengi

19:30



모악당

Moak Hall

전주세계소리축제
X 전북CBS ‘별빛콘서트’Jeonju Int'l Sori Festival
X JEONBUK CBS
Starlight Concert

ON

20: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판소리다섯바탕 춘향가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Five Batangs of Pansori
Chunhyang-ga

10 01

Oct. 1(Fri)

| 금요일

19:00 ₩

명인홀

Myeongin Hall



산조의 밤
지순자, 강정숙

Sanjo Night

19: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해설이 있는 수제천
(사)정음수제천보존회

Sujecheon with Commentary
Preservation Committee
of Sujecheon

19:30 ₩

연지홀

Yeonji Hall



다크니스 품바
안무 김재덕

Darkness
Pumba

ON

20: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강허달림,
전주를 만나다

KangHuh Dalrim
meets Jeonju

10
02

Oct. 2(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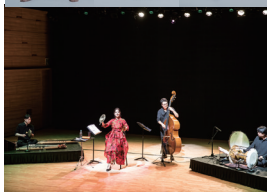
| 토요일

13:00
-16:00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젊은판소리다섯바탕

Young Five
Batangs of Pansori15:00 연지홀
Yeonji Hall판소리다섯바탕
수궁가(추담제)
김세미Five Batangs of Pansori
Sugung-ga17:00 모악당
Moak Hall국립현대무용단
'HIP 습'Hip 습 :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18: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소리프론티어 시즌2 '이름'
비로소판소리Sori Frontier Season2
BeerosoPansori
REACH THE NAME

19:00

명인홀
Myeongin Hall소리프론티어 시즌2
'햄릿, 혼잣말'
플레이워드Sori Frontier Season2
Playwith-Hamlet Monolog

ON

20: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판소리다섯바탕
흥보가

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권

Five Batangs of Pansori
Heungbo-ga

10 03

Oct .3(Sun)

| 일요일

14:00 ₩

연지홀
Yeonji Hall



판소리다섯바탕
적벽가(보성소리)
윤진철

Five Batangs of Pansori
Jeokbyeok-ga

15:00 ₩

모악당
Moak Hall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Quinteto
Astor Piazzolla

15: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소리프론티어 시즌2
‘놀부 FLEX’ 휠러스

Sori Frontier Season2
Wheelers
Nolboo FLEX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소리프론티어 시즌2
‘심청:꽃을 든 여인’
민속악회 맴돌

Sori Frontier Season2
Folk Music Group Maemdol
Simcheong : a lady with flowers

17:0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Africa
Overland

18:00 ₩

연지홀
Yeonji Hall



판소리다섯바탕
심청가(동초제)
송재영, 장문희

Five Batangs of Pansori
Simcheng-ga

ON

19:30

야외공연장
Outdoor Theater



폐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열전)

Closing Performance
Fever Time

티켓 안내

티켓구입
온라인 예매

현장 매표소 운영

구 분	위 치	운영 시간	운영일
종합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1층 안내데스크	09:00 ~ 21:00	9.29.(Wed)
연지홀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1층 안내데스크		~
명인홀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1층 안내데스크	공연 시작 2시간 전	10.3.(Sun)
야외공연장 간이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앞		

입장 및 공연관람 유의사항

- * 유료공연 사전예매 및 무료공연 사전예약 관객분들은 공연 당일,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 * 무료 공연의 경우 공연 시작 20분 전까지 수령되지 않은 티켓은 현장 관객분들을 위한 티켓으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공연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티켓 수령 시 예매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유료 공연의 경우 축제 기간 중 환불이 불가합니다.

티켓할인안내

20%	JB카드(전북은행) (1인 4매), 초·중·고 학생(본인 1매)
30%	단체할인(20명 이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1인4매), 전북투어패스카드(1인 1매), 예술인패스(본인 1매)
40%	다크니스 HIP 습(1인 1매), 소리축제 기념품 구매(1인 1매)
50%	문화누리카드(1인 4매), 65세 이상 성인(본인 1매), 국가유공자(1인 2매), 장애인(1인 2매)

- * 중복할인 불가
- * 입장권 교환 및 발권 시 해당증명 확인, 미지참시 차액 추가지불
- * 소리축제 기념품 구매 할인의 경우 당일 구매한 영수증 제시 시 적용 가능하며, 영수증 당 1회 한정
- * (다크니스 'HIP습' 할인은 <국립현대무용단 'HIP습'>, <다크니스 품바>을 둘 다 예매 시 두 공연 동시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티켓 운영

구매처

나루컬처 naruculture.co.kr / 1522-6278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 1544-1555

일자 ~10월 3일(일)

문의 1522-6278

개막공연 RE:Origin

Opening Performance

9.29 수 19:30 모악당

29th Sep (Wed) 19:30 Moak Hall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유튜브 생중계

Live on YouTube

총연출 박재천 음악(편곡) 미연 구성 김희경

20

스무 해 소리축제,
우리 모두의 서사가 시작된다!

Twenty years of Sori Festival,
and the narratives of all of us will soon begin!

예술가·평론가·마니아 등 20여 명 패널 출연...

토크 콘서트 형식

20년을 집요하게 가꿔온 소리...

오늘, 바로 여기 존재해 온 자취

20 panels of artists, critics, and our fantastic fans will
appear on the stage...Talk concert format
For 20 years, Sori has enjoyed sustained growth...
Today, we see that trail that began right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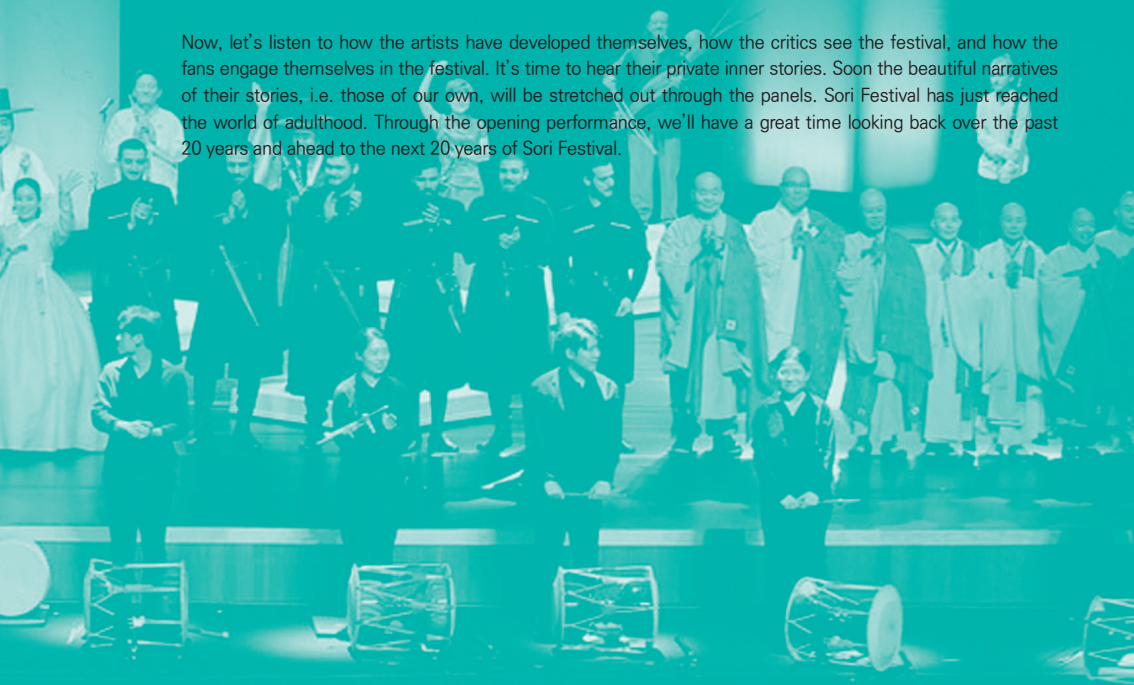


전주세계소리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개막공연은 축제와 얽힌 다양한 사연을 품은 20여 명의 패널들이 무대에 오른다. 그동안 소리축제의 무대를 다채롭게 빛내준 예술인들과 축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가진 평론가, 축제를 만들어 온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소리축제'를 외치는 '찐 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서사와 '판소리 확장형 공연'들이 교차한다. 20년의 시공을 거뜬히 뛰어넘는 형식 파괴, 장르 파괴의 토크 콘서트형 기획물.

예술인들은 소리축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평론가들은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실어 놓았는지, 내밀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곧 그들의 이야기이자,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이 아름다운 서사들이 스무 명의 패널들을 통해 펼쳐진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리축제, 개막공연을 통해 '소리'로 이어 온 스무 해, '소리'로 이어 갈 앞으로의 스무 해를 기대해 보는 시간.

The opening performance, 'RE:Origin', celebrating the twentieth year of Jeonju Int'l Sori Festival casts 20 panels on the stage who embrace various stories concerning Sori Festival. Artists symbolizing Sori Festival, critics presenting various viewpoints, the personnel who have made the festival, and the 'real fans' crying 'Only Sori Festival'. Plus colorful narratives and 'expanded Pansori performances' will all cross over into a kind of talk-concert project destructing types of forms and genres.

Now, let's listen to how the artists have developed themselves, how the critics see the festival, and how the fans engage themselves in the festival. It's time to hear their private inner stories. Soon the beautiful narratives of their stories, i.e. those of our own, will be stretched out through the panels. Sori Festival has just reached the world of adulthood. Through the opening performance, we'll have a great time looking back over the past 20 years and ahead to the next 20 years of Sori Festival.



개막공연 RE:Origin

Opening Performance

판소리 단가 '광대가'

김일구 명창 | 이상호 교수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첫 개막식 무대를 연 김일구 명창의 새로운 무대.

소리꾼이 갖춰야 할 네 가지 조건 '인물·사설·득음·너름새'와 더불어 인품과 기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광대가를 통해 소리꾼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

'Gwangdae-ga'(song of a clown), Pansori short verse

Master artist Kim Ilgu's new performance, the first sequence of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1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rough 'Gwangdae-ga', with which audiences can witness firsthand the four conditions of a sori artist, 'character, narration, high-quality vocal, and neoreumsae (gesture)' and the artist's dignity and nobility, we can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sori artist

판소리 단가 '사철가'

왕기석 명창 | 이상호 교수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르는 영구한 세월에 비해 유한한 우리네 인생 행로를 담담하게 노래하는 사철가. 왕기석 명창의 사철가는 호방하면서도 애절함이 섞여 있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절실하게 전달한다.

'Sacheol-ga' (song of four seasons), a short Pansori verse

Compared to perpetual times flowing from Spring to Summer, Fall, and Winter, the song sings our mortal journey so plainly. Master sori artist Wang Giseok's 'Sacheol-ga' is so powerful but deep with a sorrowful note that it transfers all human feelings earnestly.

판소리 수궁가 中 '호랑이와 별주부 만나는 대목'

김세미 명창 | 수성반주_장단 박종호 대금 이진용 아쟁 서수진

"역시 전주의 소리"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 전북 소리를 지켜온 소리 명가의 출신답게 훌륭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훌륭한 구사력과 연륜으로 기대 이상의 소리를 전해준다.

Pansori Suggung-ga

'That's it. That's the real Jeonju sori!' Master artist Kim Semi's Suggung-ga evokes exclamation. Like a master artist from a noble family that has kept Jeonbuk sori alive, she will show an outstanding performance. With excellent command and experience, she delivers her sori at a standard beyond all expectations.



판소리 흥보가 中 ‘제비노정기’

정보권 | 이정인 | 한유선미리암스발레단 | 편곡 미연 | 안무 한유선

발레 음악 ‘볼레로’를 닮은 장단 위에, 이중창 같은 남녀 소리꾼의 판소리가 더해진다.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강렬한 사운드 위에 발레 춤사위가 ‘흥보가’ 속 제비처럼 날아든다. 색깔이 다른 두 장르의 예술이 신선한 조화를 이룬다.

‘Swallow’s Journey Back to Heungbo’ from Heungbo-ga

To the bolero-like beat, music for ballet, with the addition of a duet-like male and female Pansori. On the repetitive, addictive strong sound, ballet dance flies onto the stage like a “swallow” from Heungbo-ga. Two different genres of arts combine to create a fresh harmony.



판소리 수궁가 中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

전북어린이예술단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편곡 미연

어린이 소리꾼 김선웅 김선재 김지울 이지우 정이안 조효린

코로나로 인해 연주 기회가 축소된 전북 어린이 음악가들이 준비한 무대. 판소리 수궁가 중 호랑이와 별주부가 만나는 대목을 클래식, 국악기, 판소리 분야 어린이 연주자의 합주로 재해석된다. 타 장르와의 첫 협업 시도인 이 무대는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예술제에 비대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Pansori Suggung-ga

A stage prepared by child musicians from Jeonbuk whose opportunities to play on a stage have been reduc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 part of Suggung-ga where Tiger and Byeoljuba meet will be reinterpreted as an ensemble of child performers with classical music, traditional music, and Pansori. The stage, the first attempt to collaborate with other genres, will be presented non-face-to-face at the Kagoshima Asian Youth Arts Festival

아리랑

방수미 | 박애리 | 정상희 | 편곡 미연

2020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과 러시아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곡.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체르토 오케스트라와 혼성 4부 합창단이 빛내는 풍성한 선율 위로 한국 최고 판소리 소리꾼 3명이 부르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돋보인다. 후반부 태평소의 강렬하고도 힘찬 솔로 연주가 대미를 장식한다.

Arirang

A song created as part of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between Korea and Russia proceeded as a non-face-to-face play in 2020. On top of the rich melody created by Russia’s St. Petersburg Concerto Orchestra and the Mixed Quartet Choir, the three best Pansori artists put on their enchanting melodies. Taepyeongso’s intense and powerful solo performance in the second half marks the end.

개막공연 RE:Origin

Opening Performance 20 Pannels

예술인



조소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전북을 대표하는 명창. 소리로 두루 잇는 삶을 살아왔다. 판소리와 고수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9개나 배출한 명가로 손꼽히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함께 만들어왔다.



지성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예능 보유자

깊이 있는 산조 중심의 무대부터 실험적인 협업 작업까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명인.



장인숙

넬마루 무용단 대표

전통적 영강 위에 판소리나 전주부채 등의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는 무용가. 수년에 걸쳐 춤으로 풀어내는 판소리다섯바탕에 집중해 왔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

판소리 스타, 왕기석 명창은 창극과 전통판소리를 두루 섭렵하며 총횡무진 달려왔다. 판소리가 전통음악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의 음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항윤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지도위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6호 전라삼현육각 대금 이수자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대금 연주자. 다양한 무대를 통해 소리축제에 참여했으며, 협력 사업의 중심 연주자로 함께해왔다.



조상훈

타악그룹 동남풍 대표

창단 27년을 맞은 전라북도의 타악연주단체 동남풍의 대표.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과 콜라보레이션에 긍정적인 자세로 지난 20년간 소리축제를 통해 다양한 해외 음악가들과 협업해왔다.



박동석

2019 소리프론티어 우승단체
가악프로젝트 대표

작곡가이자 해금 및 전자음악가. 아쟁 및 타악, 대금 연주자와 함께 가악 프로젝트를 이끌며 세련되고 신선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보권

2014개막공연 淸Alive 출연
판소리&플라멩코 프로젝트 참여

2014년 소리축제 개막공연 무대를 시작으로 정통판소리와 현대적인 작업을 겸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이정인

2014개막공연 淸Alive 출연
2019문화동반자사업 참여

2014년 개막공연을 통해 소리축제 첫 참가를 시작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품이 큰 소리꾼으로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정이안

소리축제 관객/판소리 전공

매년 부모님과 함께 소리축제를 찾았던 꼬마관객, 소리축제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게 되어 소리꾼의 길을 선택해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 유일 판소리 하는 도지사. 판소리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소리 애호가로서 긴 세월 소리축제의 산증인으로 함께하고 있다.



김한

조직위원장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국제교류사업 확대, 신진 예술가 발굴, 창작 실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지지함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 발전과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최동현

前 군산대학교 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

판소리에 인생을 바친 국문학자.
판소리 관련 수많은 연구조사를 통해 판소리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소리축제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며 판소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윤중강

국악평론가, 연출가

국악평론가 겸 연출가, 솔직하고 가감 없는 비평을 통해 국악계 이슈를 창조한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소리축제를 관찰하고, 축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비평과 제안을 아끼지 않는다.



신경아

음악여행작가

친절한 월드뮤직 해설자로 활동하며 처음 세계음악을 접한 청중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해설자로 불린다.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는 가치를 실천하는 소리축제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조세린

배재대학교 교수

한국의 가야금을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을 깨우쳤다고 말하는 파란눈의 가야금연주자이자 한국전통예술 마니아인 조세린 클락 교수.



곽동영

기록사진 작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한눈에 보는 작가, 축제 현장 곳곳의 다양한 장면과 표정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왔다.



송성근 /소리축제 객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교사

소리축제의 열혈팬이자 애호가. 2019년 개막공연 전북연합청소년관악대 무대에서 삼례중앙초등학교의 관악부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하여 개막 무대를 빛나게 해준 조력자이기도 하다.



박진희

판소리스토리박스 기획 및 운영

판소리스토리박스를 통해 미술로 접하는 판소리를 가능하게 했다. 지역 미술작가들이 참여해 직접 체험프로그램과 전시작품을 기획하며 어린이소리축제 대표작품을 진행했다.



주영광 소리천사/스텝 출신

現전주국제영화제 기획팀장

소리천사로 시작된 축제와의 만남이 결국 운명처럼 이어져 직업 축제인 으로 발판을 넓히고 있다. 든든한 지역문화예술일꾼으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 행

이충훈 전주MBC 아나운서

최유선 前 소리천사, KTV 방송진행자

영상 참여

찰리 크루이즈만

Charlie Crooijmans, 월드뮤직 저널리스트

소리축제의 풍성한 현장 경험과 함께 2020년 비대면 소리축제도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세계소리축제는 곧 판소리라고 말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샤샤 간킨

Sasha Gankin, BBC 아프리카 저널리스트

러시아 출신 언론인으로 라디오 리포팅을 통해 노르웨이와 프랑스, 영국 등에 소리축제를 소개하고 있다.

리알타

Réalta, 2014·2016소리축제 참가

2014, 2016년 두 번의 소리축제 참여로 흥겨운 아이리쉬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즐겁게 연주하는 자세로 진정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다.

故차우마커

Camake Valaule, 2016타이우고전민요단 예술감독

타이우 지역의 소수민족의 민요를 전승해나가고 있는 '타이우고전민요단'의 예술감독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소수민족의 음악을 선보이고 맥을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판소리다섯바탕

Five Batangs of Pansori

정통 판소리의 정수,
색다른 전통의 미학과 가치
축제의 중심축 지켜온
‘판소리 다섯바탕’

The essence of authentic Pansori,
the aesthetics and values of different traditions
‘Five Batangs of Pansori’ that have maintained
the central position of the festival

올해는 축제 20주년을 기념하며 ‘소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판소리다섯바탕’에 진하게 녹여낼 계획. 판소리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 색다른 전통의 미학과 가치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통 판소리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배치했다. 미래 지향의 ‘판소리’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20주년 소리축제의 중심 기획.

This year, celebrating its twentieth anniversary, utmost interest will be placed by ‘Sori’ into the ‘Five Batangs of Pansori’. The festival committee will present two programs: first, the essence of authentic Pansori, and the second will see different types of Pansori introducing new elements into different aesthetics and values of traditional Pansori. This is the ambitious plan of the twentieth Sori Festival to enjoy various aspects of future-oriented Pansori.

판소리다섯바탕 **춘향가**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

9.30 목 20:30 야외공연장

30th Sep (Thurs) 20:30 Outdoor Theater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유튜브 생중계
Live on YouTube

우리 소리를 대표하는 여성 명창(방수미, 박애리, 정상희) 3인의 춘향가가 시작된다. 튼튼한 목을 가져 힘찬 발성의 방수미, 정교한 아니리와 너름새를 잘 구사하는 박애리, 상하청을 두루 잘 내며 감정표현이 뛰어난 정상희까지 각기 다른 여성 명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Chunhyang-ga, performed by three leading female Sori masters(Bang Sumi, Park Aeri, and Jeong Sanghee) begins. Audiences can enjoy the different attractions of them. Bang Sumi's energetic vocal through her strong vocal chords. Park Aeri's exquisite 'Aniri' and 'Neoreumsae' and Jeong Sanghee's fantastic emotional expression with her well developed high and low vocals.

방수미

2012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대상 수상

2016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8 KBS국악대상 수상

現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

박애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제37회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수상

제32회 KBS국악대상 판소리상 및 대상 수상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수상

정상희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젊은예술인상 성악-판소리

2018 제26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고수 임현빈

고수 김태영



판소리다섯바탕 홍보가

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권

10.02 토 19:30 야외공연장

2nd Oct (Sat) 19:30 Outdoor Theater



전세계소리축제 공식 유튜브 생중계
Live on YouTube

새로운 소리의 길을 여는 젊은 남성 소리꾼(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권)의 홍보가. 국립창극단에서 주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준수와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빼어난 실력의 소유자 유태평양, 여러 작품의 주역으로 발탁되며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소리꾼으로 성장한 정보권의 힘 있고 올곧은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Heungbo-ga, by three young male sori masters (Kim Junsu, Yu Taepyeongyang, and Jeong Bogwon) who are pioneering new paths of 'sori'. Kim Junsu is the leading figure of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Yu Taepyeongyang is an excellent sori artist who's expanding his field into various ranges, and Jeon Bogwon has grown into the most spot-lighted next generation sori artist while being selected as a main character of many works. Their strong and attractive 'sori' will fill the stage.

김준수

전남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2010 국립창극단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 선정
20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現 국립창극단 단원

유태평양

2012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부문 우승
2017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18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청와대 축하 공연
現 국립창극단 단원

정보권

2017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2018 정동극장 판소리 뮤지컬 '적벽' 조자룡 역
2019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항우 역
대한민국 창극제 '적벽에 불지르다' 조조 역

고수 김성근

이야기꾼 민석준

연출 이왕수

구성작가 안선우



판소리다섯바탕 수궁가(추담제)

김세미

10.02 토 15:00 연지홀

2nd Oct (Sat) 15:00 Yeonji Hall

기품있는 소리와 정교한 너름새, 전력을 다하는 창법을 가진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 완창을 만나본다.
수궁가 완창 무대를 통해서 김세미 명창의 소리에 깊이 빠져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It's time to enjoy the complete Sugung-ga of Kim Saemi, who has a delicate vocal and 'neoreumsae', also with powerful vocalism. Through the complete song of Sugung-ga, audiences will have a special opportunity to enjoy master Kim Saemi's great ability.

김세미

홍정택, 오정숙선생님 사사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홍정택선생 수궁가 이수자

2001 남원춘향제 판소리부문 대상(대통령상)

現 전라북도립국악원 청극단 지도위원

고수 조용안

고수 흥성기

해설 및 자막운영 최동현



판소리다섯바탕 적벽가(보성소리)

윤진철

10.03 일 14:00 연지홀

3rd Oct (Sun) 14:00 Yeonji Hall

보성소리 적벽가는 창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소리로 목소리의 변화를 통한 미감을 즐기는 데에 집중하여 수준 높은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리이다.

윤진철 명창의 보성소리는 장단과 붙임새가 정확하고 사설의 전달과 발림을 통한 표현력이 뛰어나 보성소리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Boseong Sori Jeokbyeok-ga is a sori that is hardly influenced at all by 'changgeuk', and audiences can experience high-quality musicality by concentrating on enjoying the aesthetics through changes of the vocal. Master sori artist Yun Jincheol's Boseong sori is accurate in beats and crisscrossing attachment, and has excellent expression through the delivery of narration and 'balim', enabling you to see the true character of Boseong sori.

윤진철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1998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장원 (대통령상)

2005 KBS국악대상 수상

2013 서암문화대상 수상

現 공연기획 '프렉탈' 대표

명지대 겸임교수, 전북대 강익전담교수

고수 조용수

해설 및 자막운영 최동현



판소리다섯바탕 심청가(동초제)

송재영, 장문희

10.03 일 18:00 연지홀

3rd Oct (Sun) 18:00 Yeonji Hall

정통 판소리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판소리로 송재영, 장문희 명창의 동초제 심청가가 준비되어 있다.

송재영 명창은 고음에 부족함이 없고 치열함이 돋보이는 소리를, 장문희 명창은 타고난 목구성에 힘이 좋아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번 심청가는 송재영, 장문희 명창이 각각 한 시간씩 연창으로 진행한다.

A program where audiences can enjoy the essence of authentic Pansori, through 'Dongchoje' Pansori Simcheong-ga (completed by 'Dongcho, Kim Yeonsu'), master Song Jaeyeong's outstanding intense high vocality, and master Jang Munhee's excellent inborn delicate vocal, giving her great ability to capture her audiences. This time the two sori masters sing Simcheong-ga for one hour in turns.

송재영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2003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문 장원(대통령상)

2021 한국 국악협회 국악대상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및 조직위원장

장문희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2004 제3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現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

고수 조용수

고수 고정훈

해설 및 자막운영 최동현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Young Five
Batangs of Pansori

10.02 토 13:00 야외공연장
2nd Oct (Sat) 13:00 Outdoor Theater

홍보가
박자희

수궁가
최용석

2021 소리축제가
주목한
젊은 소리꾼 5인
친숙한 판소리,
합동 무대가 백미

Five young sori artists given
special attention by the 2021
Sori Festival
Familiar Pansori and
their joint performances
are the point



제10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장원
(문화관광부 장관상)
제13회 영광단오제 전국 국악 경연대회
명인부 종합 대상 (국회의장상)
現 정 국악연구소 대표



전라북도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제30회 전국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現 국립창극단 창악부 단원

고수 고정훈



고수 김한샘



2021년 가장 주목할 만한 젊은 소리꾼 5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젊은 소리꾼 5인이 각각의 개성을 더해 자유롭게 구성한 판소리 눈대목의 매력을 만날 수 있으며 5인이 함께 여는 합동 무대는 무대의 백미를 장식한다.

A great chance to meet the hot young sori artists of 2021 on a stage. Audiences will see the most charming and captivating parts of Pansori freely interpreted and composed by each of them, and their joint performance will close the curtain.

적벽가 김주리



2013년 자랑스런 대한민국인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
제8회 자랑스러운 청소년 대상
(Youth Hero Prize) 예술부문 대상
제20회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판소리 부문
일반부 대상

심청가 김정훈



제19회 보성세계소리축제 일반부
판소리부문 최우수상
제26회 임방울국악제 일반부 판소리부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現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상임단원

춘향가 한아름



제20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일반부 최우수상
제18회 숲쟁이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국가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고수 이우성



고수 추지훈



고수 박민성



소리프론티어 시즌2

Sori Frontier, Season 2

소리의 동시대성과 방향성 제시

판소리 중심의 창작작품 7選

Suggestion for the contemporariness
and directions of sori

Collections of 7 creative Pansori works

지난 10년의 역사를 달고 새롭게 탄생한 소리 프론티어 시즌2, 시즌2는 판소리 중심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작 공연 팀들의 초연 및 재연작 총 7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소리프론티어 시즌2를 통해 판소리 역사의 새로운 10년의 문을 열고자 한다.

Sori Frontier Season 2, a new transformation overcoming the past decade of history. Season 2 has concentrated on collecting and supporting Pansori-based creative works. In total, seven works of creative performing teams, including premieres and re-runs, are chosen through open call. Through Sori Frontier Season 2, a new history of Pansori opens the new era.

<TALE>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TALE - BADAKSORI

9.29 수 19:00 명인홀

29th Sep (Wed) 19:00 Myeongin Hall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 판소리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노동 현실, 50년 전 전태일이 바라고 원하던 세상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정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시대의 삶을 노래하는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는 실제 노동자들의 사연을 엮어 다큐 판소리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4개의 프레임과 신발을 통한 극의 전환, 상자로 표현되는 인물이 처한 현실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된다.

Documentary Pansori embodying the voices of our times

How are the realities of our labor? How much has the world advanced according to Jeon Taeil's desires of 50 years ago? Based on the authentic Pansori, sori from the lower class that sings the life of their own times will present a documentary Pansori-type performance, collecting stories of real laborers. A transition of plays through four frames and pairs of shoes and the realities of a character who's expressed as a box, will be vividly embodied on the stage.

출연진

소리꾼 배우 정지혜 김부영 김은경 강나현

연주자 이정 김범식 피리/태평소 박시현 타악 이승민 양성태

제작진

공동창작 바닥소리, 이기쁨

연출 이기쁨 안무 유선후 음악감독 이승민

무대디자인 서지영 조명디자인 신동선 음향디자인 전민배

의상디자인 김승이 무대감독 이재은 기획 맹가희, 안유진

<여기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한사코

Stay here for a while, then go back - Hansako

9.29 수 19:00 야외공연장

29th Sep (Wed) 19:00 Outdoor Theater



즐겁고 평안한 마지막 안녕에 대하여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왜 슬프기만 할까. 한사코는 즐겁고 평안한 마지막 안녕에 대해 한과 흥의 의미를 즐거운 낚풀이로 승화한다. 슬픔과 한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마지막 이별을 즐겁고 활기찬 소리로 맞이한다. 전통판소리의 원형, 그 소리의 구조들을 중심으로 창작하고 풀어내어, 보내는 이의 기쁨의 낚풀이와 함께 배웅한다.

On a Pleasant and Comfortable Farewell

Why do we feel sad when we die? Hansako sublimates the meanings of sorrow and excitement of the pleasant and comfortable farewell into a pleasant soothing ritual for the dead. They transform the last farewell that seems to be full of sorrow and regret, and greet them with pleasant and lighthearted sori. Creating and showing the performance centering on traditional Pansori and its structures, they send off the dead with a pleasant soothing ritual.

출연진

가야금병창 **자유정 이은희**

타악 **김솔지**

피리/생황 **오초롱**

제작진

연출 **김솔지**

영상디자인 **라지웅**

음악/구성 **한사코**

<풍각쟁이>

소리극단 도채비

Punggakjaengi - Sori Art Company 'Dochaebbee'

9.30 목 19:00 명인홀

30th Sep (Thurs) 19:00 Myeongin Hall



N포 세대에게 외치는 희망의 메시지

각고의 노력과 고생 끝에 사업 아이템 개발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 흥부. 그러던 어느 날, 권력자 놀부가 찾아와 흥부의 사업 아이템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벼랑 끝에 선 흥부, 정말 흥부는 괜찮은 걸까? 전통예술을 뿌리에 두고 동시대적 융·복합 콘텐츠를 지향하는 소리극단 도채비는 권력가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N포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Messages of Hope to Generation Pause

Finally, Heungbu, a young businessman, succeeded in developing a good business plan after painstaking efforts. One day, Nolbu, a man of power, visited Heungbu and plundered all of that business. Now, is Heungbu, standing on the edge of a precipice, all right? Dotchaebbi, pursuing contemporary contents covering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ased on traditional arts, satires the realities of men of power, and pronounces messages of hope to generation pause who have lost their hopes and dreams.

출연진

흥부 **이건일** 자라/중국선인/흥보아들 **이정원**

놀부/용왕/중국선인 **김원곤** 춘향/심청/흥부처 **정정은**

변사 **오민혁** 비서/방개/중국선인/제비 **박필순**

연주

피아노 **김성수** 콘트라베이스 **김윤성** 드럼 **홍지형**

제작진

연출 **서동수** 조연출 **전승민** 조명감독 **최광로** 음향감독 **김보근**

<이름>

비로소판소리

REACH THE NAME - BeerosoPansori

10.02 토 18:00 야외공연장

2nd Oct (Sat) 18:00 Outdoor Theater



이름을 통해 삶의 흐름을 깨닫다

인간의 생은 '이름'을 부여받아 '이름값'을 하는 삶. 마지막에는 그것을 남기는 것에 '이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을 소리에 오토이 담아낸다. 이름을 얻고, 고하고, 존재하고, 순응하며 걸어가는 삶의 흐름을 무대 위 펼쳐낸다.

Realizing the Flow of Life Through Names

Isn't it true that a person's life begins with their name, staying with them throughout their life, with that name ultimately living on long after the person's life comes to an end? Emotions that anyone would sympathize with will be fully immersed in the 'sori'. The flow of receiving, telling, living up to, and complying with their names while living their lives is presented on the stage. Now, Pansori artists Ryu Gayang and others show the stories and desires of our times in the art.

출연진

소리꾼 류가양

베이스 최인환

타 악 황민양

가야금 이 준

제작진

총괄기획/드라마터그 정혜리

대본/작창 류가양

음악감독/작곡 최인환

<햄릿, 혼잣말>

플레이워드

Hamlet Monolog - Playwith

10.02 토 19:00 명인홀

2nd Oct (Sat) 19:00 Myeongin Hall



MZ 세대를 사로잡는 K-햄릿의 탄생

서양 고전을 우리의 전통의 요소를 통해 재해석한 창작물 <햄릿, 혼잣말>은 자극히 한국적인 것과 현대의 정서를 오토이 담은 유니크한 매력을 갖는다. 소리꾼이 오직 햄릿에 집중하여 그의 머릿속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K-햄릿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 MZ세대의 감성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서양의 햄릿에 한국적 색채를 입혀 'K-햄릿'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켰다.

Birth of K-Hamlet Captivating the MZ Generation

'Hamlet, Soliloquy', a reinterpretation of western classics through elements of Korean traditions, has a unique charm that contains extremely Korean and modern emotions. The sori artist focuses himself on only Hamlet and pioneers a new genre called 'K-Hamlet' through a three-dimensional process. Not only does it captivate the emotions of MZ Generation, but also gives birth to a genre, 'K-Hamlet,' instilling Korean traits into the western classic Hamlet.

출연진

소리꾼 송보라 고수 최효동

작곡·음악감독·피아노 정한나

제작진

각색·연출 박선희

시노그래퍼 한원균 사운드 디자인 윤석도 음악감독 김수경

소품·의상디자인 강정화 조연출 전현식 프로듀서 정경화

<놀부 FLEX>

휠러스

Nolboo FLEX - Wheelers

10.03 일 15:00 야외공연장

3rd Oct (Sun) 15:00 Outdoor Theater



도깨비 시점, 놀부 인생 다시 보기

놀부의 인생을 지켜본 도깨비들이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선과 악으로만 구분되었던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틀을 바꾸어 생각해 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깨비들의 축제 한바탕이 벌어진다. 판소리, 창작 판소리, 서커스,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모여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Re-viewing Nolbu's Life from Dokkaebi's Viewpoint

The dokkaebis (goblin) who have watched Nolbu's life, cast radical questions about the rights or wrongs of life itself. Reconsidering the story of Heungbu and Nolbu, which has been divided into good and evil according to different points of view, dokkaebis hold a festival for pleasant and happy lives. Various genres of art such as Pansori, creative Pansori, circus, and acrobatics will gather to present eye-catching performances.

출연진

제비 박현정 설나라 장군(김형석) 배웅기 이민영 순규

제작진

연출 배웅기

작창 박현정

음악 김홍희

작편곡 김홍희 박소향

퍼커션 설나라

의상 홍기숙우리웃

<심청:꽃을 든 여인>

민속악회 맴돌

Simcheong : a lady with flowers
Folk Music Group Maemdol

10.03 일 17:00 명인홀

3rd Oct (Sun) 17:00 Myeongin Hall



꽃을 통한 암시, 1인 모노드라마 심청

'심청 : 꽃을 든 여인'은 민속악을 기반으로 한 1인 모노드라마 형식의 창작극이다. 소리꾼 1인은 '심청'뿐 아니라 심봉사, 뽕덕, 상여꾼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악사들의 연주, 노래, 허밍, 대사와 함께 무대를 가득 채운다. 짝새 부인의 죽음, 어린 심청의 모습,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과정을 꽃을 통해 암시하며 극을 이끌어 나간다.

Implications Through a Flower, Monodrama of Simcheong

'Simcheong: a Lady with Flowers' is a newly created monodrama based on folk music. One sori artist plays several roles, including Simcheong, Simbongsa, Bbaengdeok, and a pallbearer, and fills the stage with musicians' performances, songs, humming, and dialogues. Through all the processes such as the death of Lady Gwak, Simcheong in her childhood, and her drowning at Indangsu, the monodrama continues on through the implications of flowers.

출연진

대금 정재민

소리 유희원

타악 김경태

아쟁 마도현

해금 국재환

가야금 김혜영

제작진

연출 정민영

기획 김충현 한동우 음향감독 최정규 조명감독 하경국

산조의밤

Sanjo Night

10.01 금 19:00 명인홀

1st Oct (Fri) 19:00 Myeongin Hall

바람과 물이 흐르는 계절

참된 산조의 고유한 미적 가치

The season when wind and water flow

The inner aesthetic values of the authentic sanjo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지순자

1969 대한민국예술상 수성상(국무총리상)

1974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전수자

평가발표회 우수상

現 지역희민속음악 연구회 회장

수임당가락타기 대표

고수 이태백

사회 및 해설 윤충강



올해 소리축제에는 20주년의 기점에 서서 '가장 산조다운 산조'를 통해 산조의 참된 가치를 제시하는데 주력한다.

산조의 백미로 손꼽히는 가야금 산조의 양대 산맥 '지순자', '강정숙'명인을 모시고 농익은 산조의 계절로 관객을 초대한다. 유려한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자신만의 흐름을 구축한 시대의 명금이자 국금, 두 명인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산조만의 고유한 미적 체험을 약속한다.

This year's Sori Festival will focus on suggesting the real values of 'sanjo', through 'the most sanjo-like sanjo', to think over what to do for the next 20 years. Casting two rival masters of gayageum sanjo,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in sanjo, we'd like to invite you to the fully matured sanjo season. Ji Sunja and Kang Jeongsuk are the master gayageum artists of our times and our country. Their playing abilities guarantee you sanjo's own aesthetic experience. You can see the vigorous gestures taking over rhythms and fantastic rhythmic touches. You can blow like the wind and permeate like water through the real sanjo. The show will be proceeded by gugak critic Yun Junggang's explanation covering history and artistic conditions.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강정숙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1986 제4회 신라문화제 대상(대통령상)
現 사단법인 가야금병창 보존회 이사장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국악과 객원교수

고수 고정훈

사회 및 해설 윤종강



광대의 노래 ‘사금(四金)’

Song of Masters

9.30 목 18:40 야외공연장

30th Sep (Thurs) 18:40 Outdoor Theater

연출 조세훈

대한민국농악반주단

김현진 류현수 박성우 박창배 배재현 엄용운 염창수 우병태 윤여주 윤용준 이강희 이성호 조흥국

대한민국 최고의 상쇠 명인 4인

넘실대는 신명, 허를 찌르는 가락의 절묘함!

Korea's best leading kkwaenggwari players

Overflowing exhilaration, exquisite rhythmic touch



임
광
식

유
지
화

1957 세마대 걸립농악 시초자

1965 남사당 입단 및 상쇠

現 임광식 상쇠놀이 보존회 회장

수원 진대배기 두레 풍물 보존회 회장

1983 신라문화재 전국국악대회 최우수상(타악부문)

1987 제5회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대상

2010 제10회 안성바우덕이 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대통령) 수상

現 대불대학교 연희학과 교수

대한민국 최고의 농악 상식 명인 4인(임광식, 류명철, 유지화, 손영만)과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지역 농악에 독특하게 전승되어 온 팽과리 가락 중심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도의 음악성과 넘실대는 신명, 치밀한 변주와 허를 찌르는 가락 구성의 절묘함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Korea's four leading kkwaenggari players (Im Gwangsik, Ryu Myeongcheol, Yu Jihwa, Son Yeongman) and their students perform together on a stage to show a work centering around the melodies of the kkaenggari, uniquely passed on to local Nongak. special techniques with the kkaenggari, present a very special moment that shows high musicality, surging exhilaration, elaborate variation, and unexpected miraculous melody lines.



1959 남원춘향제 전국농악경연대회 특별상 수상
2002 제11회 세계사물놀이 경연대회 남원농악단 지도, 국무총리상
2019 국가무형문화재 11-8호 '남원농악보존회' 지정
現 남원시립농악단 부단장

2011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금릉빛내농악' 대통령상
2013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 8호 보유자 지정
現 (사) 국가무형문화재 제 11-7호 김천 금릉빛내농악보존회 이사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Quinteto Astor Piazzolla

10.03 일 15:00 모악당

3rd Oct (Sun) 15:00 Moak Hall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 월드투어

한 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탱고의 과감한 힘과 에너지

아쟁 김영길 명인과의 치열한 만남

Quinteto Astor Piazzolla

World Tour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Piazzolla

The daring strength and energy of his tango

that you will never forget once you experience it.

A fantastic encounter with Ajaeng master Kim Yeonggil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의 음악은 혁신적인 사운드와 멜로디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정교함과 지성을 함축한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탱고의 과감한 힘과 에너지는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탱고가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도를 이어온 피아졸라의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소리축제에서는 아쟁 김영길 명인과 합동 무대를 통해 전무후무한 탱고와 아쟁의 치열한 만남까지 엿볼 수 있다.

Their music has enjoyed explosive popularity with an innovative sound and melody, and their musical pieces are understood to be implicative and intellectual. The daring strength and energy of their tango that you will never forget once you have experienced it will present a fantastic stage with two tango dancers. It's time to experience the musical world of Piazzolla, the great musician who persevered in his efforts to give tango its own genre of music. Further, Sori Festival provides a collaborative stage with an Ajaeng master, Kim Yeonggil, to present audiences with a fantastic encounter.

공연 프로그램

돈 Biyuya
 실감나는 3분 Tres Minutos con la Realidad
 질투 Celos
 신기한 fuga Fuga y Misterio
 광란의 밀롱가 Milonga Loca
 향구의 겨울 Invierno Porteño
 데카리시모 Decarísimo
 카모라II Camorra II
 상어 Escualo
 향구의 여름 Verano Porteño
 천사의 밀롱가 Milonga del Angel
 아디오스 노니노 Adios Nonino
 천사의 죽음 La Muerte del Angel

특별 합연곡(아쟁)

화초장 - 흥부가 中
 망각 Oblivion

출연진

반도네온 파블로 마이네티 Pablo Mainetti
 피아노 니콜라스 게르슈베르크 Nicolás Guerschberg
 바이올린 세르다르 겔디무라도프 Serdar Geldymuradov
 더블베이스 다니엘 팔라스카 Daniel Falasca
 기타 아르만도 데 라 베가 Armando De La Vega
 음악감독 줄리안 바트 Julián Vat

특별출연 아쟁 김영길

※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순서는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 HIP합

Hip Hop :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10.02 토 17:00 모악당

2nd Oct (Sat) 17:00 Moak Hall

국립현대무용단의 최신작 '힙합(HIP합)'이 예술의전당 초연을 마치고, 다음 첫 행보를 '전주세계소리축제'로 정했다.

3명의 안무가 김보람, 김설진, 이경은의 신작으로 질서에 반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진 현대무용과 수많은 방법론을 낳으며 영역을 확장해온 스트리트 댄스, 여기에 국악을 바탕으로 한 사운드디자인이 쾌감의 정점을 찍는다.

The latest show, 'Hip Hop', of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premiered at Seoul Arts Center, and they will give their second performance at Sori Festival. Three choreographers Kim Boram, Kim Seoljin, and Lee Kyungeun will join together for the performance. Consistently renewed contemporary dance against the established order, street dance expanding its ranges with countless methods, and sound design based on gugak, will combine to reach a peak of pleasure for the audiences.

<등장인물>

안무_ 김설진

(무버 예술감독)

'나'의 '삶'에 출연한 수많은 '등장인물'들
'나' 또한 누군가의 '삶'에 '등장인물'로

Countless 'characters' who have
appeared in 'my' 'life'
'I' also become a 'character'
in someone's life.

출연진

안무 김설진

출연 김가수 김봉수 김설진 서일영

음악 최혜원

조명디자인 류백희

의상디자인 서일영

음원제공 창사가 포함된 춘앵전

(국립국악원)

<춤이나 춤이나>

안무_ 김보람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예술감독)

'춤이나 춤이나' 는 춤에 부여되는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원초적 본질을
탐구한다.

"Nothing to shows there is 'no'
meaning given to dance,
exploring a primitive essence"

출연진

안무 김보람

출연 김보람 공지수 서보권 성창용

임소정 조영빈 조혜원

조안무 이혜상

음악 최혜원

조명디자인 류백희

음원제공 MBC라디오

<브레이킹>

안무_ 이경은

(리케이댄스 예술감독)

"세상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세상을 맞춰라!"

"Don't fit myself into the world.
Do the other way around!"

출연진

안무 이경은

출연 고준영(DROP) 김지영(Babysleek)

김미리 임재홍 김영은 김현주

김동주 박지원(G1)

연주 이일우 이충우 이정민

작곡 이일우

조명디자인 류백희

드라마투르그 안경모

무대디자인 도현진

의상디자인 배경술

기술무대감독 조은진 조명감독 이수연 음향감독 김성환

김보람, 김설진, 이경은의 신작으로 만나는
현대무용 X 스트리트 댄스 X 국악의 HIP한 결속!

A hip collaboration of contemporary dance,
street dance and gugak presenting new works by Kim Boram, Kim Seoljin and Lee Kyungeun



다크니스 품바

모던테이블 (안무 김재덕)

Darkness Pumba

10.01 금 19:30 연지홀

1st Oct (Fri) 19:30 Yeonji Hall

깊은 암흑 속 끝없는 외침,

남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몸짓이 시작된다

Endless cry from deep darkness

Dynamic gestures of male dancers begin

깊은 암흑 속, 무용수들의 끝 없는 외침이 시작된다. 무용수들은 디오니소스(축제)적인 몸부림과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승화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으로 끝없이 춤추고 노래한다.

전통적인 품바의 선율을 현대적인 사운드 매체와 힘 있는 무브먼트와 연계를 통해 신명나는 한바탕 무대로 풀어내는 '다크니스 품바'. 전원 남성으로 이루어진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곡선미와 움직임이 강력하다. 현대무용과 현장감 있는 라이브 밴드, 소리꾼의 판소리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모던테이블만의 컨템포러리 무용 속에 녹아든다.

Deep in the dark, the endless cries of dancers begin. They sing and dance endlessly with desperate gestures to sublimate fear and panic at the same time as Dionysus's struggle.

It is a work directed by Kim Jaedeok with very original expressive ways, a young choreographer who introduced a new wave to the Korean dance scene. Called 'Darkness Pumba', it makes for an exciting, wonderful scene connecting the melodies of traditional Pumba to modern sound media and strong movements on the stage. The beauty of dynamic curve and male dancers' movement is powerful. Through modern dance, a live band, and sori master's Pansori, Korean traditional elements fuse well into the contemporary dance of Modern Table.

출연진

안무 및 음악 김재덕

무용 김재덕 이아린 이운기 김한솔 조희성 김지공 정철한

연주 허성은(드럼) 허철주(기타) 김형민(베이스기타) 소리 윤석기

제작진

조명디자인 이장한 조명 한병수 김은총 유모아 이혜지 음악감독 허성은 프로듀서 이미진



SNAP meets Sori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9.29 수 19:00 연지홀 29th Sep (Wed) 19:00 Yeonji Hall

9.30 목 11:00 연지홀 30th Sep (Thurs) 11:00 Yeonji Hall

‘마술 지팡이 없이도 완벽한 마법사들’

컨템포러리 미스터리 퍼포먼스, 소리와 만나다

Perfect magicians without magic wands

A contemporary mystery performance meets Sori

Here come the flawless magicians

이제껏 보지 못했던 완벽한 마법사들의 무대, ‘SNAP(스냅)’이 찾아온다.

‘SNAP’, 스냅은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그림자놀이, 마임 등과 결합한 무한한 마술의 세계를 무대 위에 창조한다. 올해 소리축제 무대에서는 우리 소리와와의 만남을 시도, 오묘하고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2016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진출 이후 미국, 캐나다, 대만 홍콩 등 해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유수 언론의 찬사와 러브콜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무언극 형태로 가족, 연인, 친구 등 국적과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Despite not possessing magic wands, a group of perfect magicians makes their appearance. ‘Snap’ creates a fantastic magical world on the stage, combining media art, shadow pictures, and mime based on the storytelling of fairy tales. This year, Sori Festival attempts to create an amazing combination of ‘Snap’ and Korean sori, and would like to invite audiences to the mystical and harmonious fantasy world. Since participating in the 2016 Edinburgh Fringe Festival, ‘Snap’ completed a successful world tour of the U.S., Canada, Taiwan, and Hong Kong, and has gained the recognition of leading world media. Through the medium of mime, this is a performance that can be enjoyed by one and all, regardless of nationality, age and sex.

출연진

최철승 이영민 김선우 이호정 김영주 지혜준 김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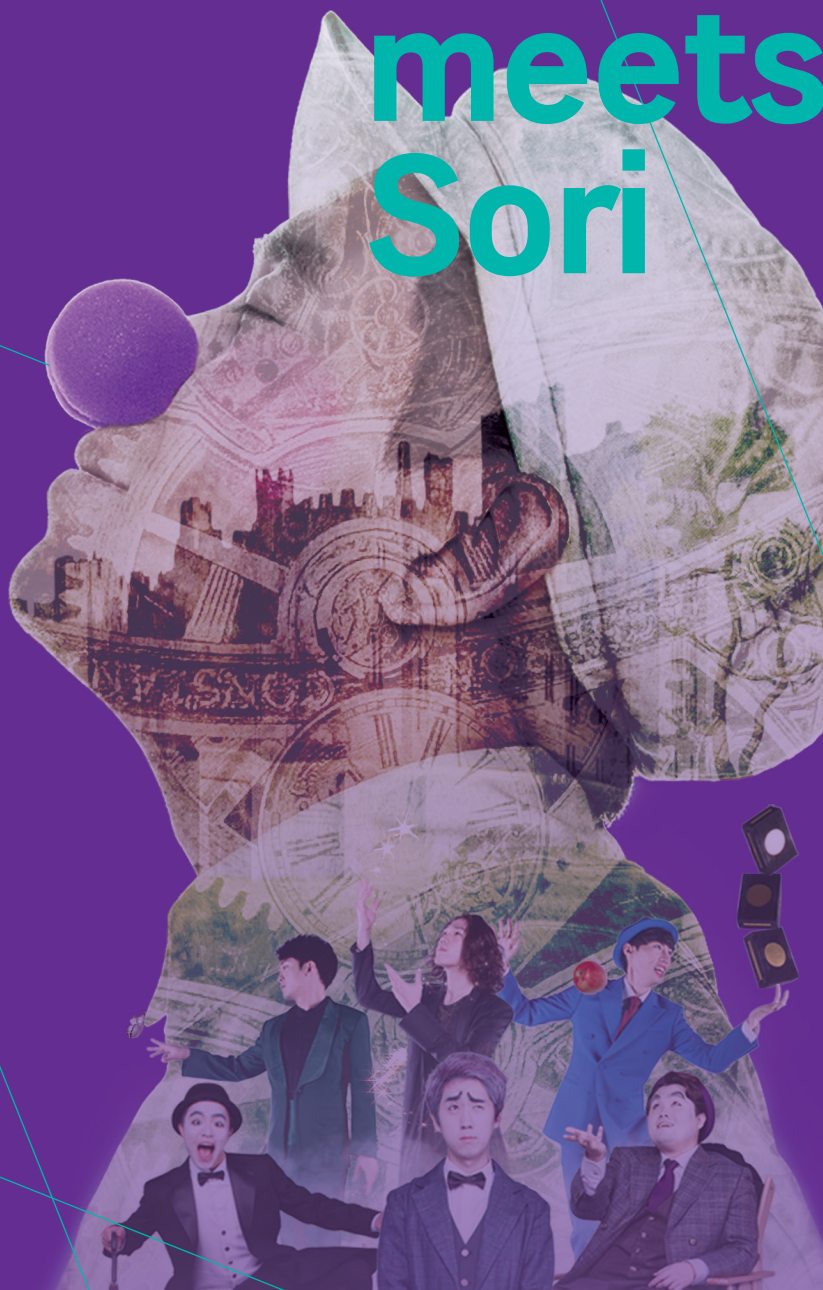
특별출연 박세미

제작진

예술감독 김형준 기획 김시네 이성범 정승연 스태프 양필도 민현기

음향 김원일 조명 박정국 이준석(V.LITE) 무대 이경표 이안호 의상 조근수 작곡 장윤희

SNAP meets Sori



선우정아

SWJA(Sunwoo Junga)

9.29 수 20:30 야외공연장

29th Sep (Wed) 20:30 Outdoor Theater

그녀의 음악 여정에 더해진 전통음악
개성과 자유가 숨 쉬는 하나의 장르 '선우정아'

A Genre of 'SWJA (Sunwoo Junga)',
where her personality and freedom breathe harmoniously
Traditional music added to her musical journey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넘나드는 선우정아가 전주시세계소리축제와 만났다. 자유롭고 개성있는 그녀의 음악 여정 위에 전통 음악이 더해지며 또 다른 음악 세계가 시작된다. 록, 재즈, 팝, R&B, 힙합과 일렉트로닉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클리셰를 비틀고, 뒤섞고, 때로는 가볍게 뛰어넘어 재창조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을 창조하며 탁월한 보컬리스트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적인 그녀의 음악에 전통음악의 사운드가 더해져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연다.

Sunwoo Junga, a musician who crosses over through various genres of music, meets JISF. On top of her free and unique musical journey, traditional music is added and another musical world begins. She twists and mixes clichés of various genres such as Rock, Jazz, Pop, R&B, Hip-Hop and even EDM

협연자

대금 박신의 해금 조진용

강허달림, 전주를 만나다

KangHuh Dalrim meets Jeonju

10.01금 20:30 야외공연장

1st Oct (Fri) 20:30 Outdoor Theater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유튜브 생중계
Live on YouTube

블루스보다 더 블루지한 목소리 '강허달림'
절망과 희망 사이 그 어딘가

KangHuh Dalrim,
a voice bluesier than blues
Somewhere between despair and hope

강허달림의 음악은 절망과 고통의 흔적이 생기 있는 리듬을 통해 극복되는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로 하여금 서정적 분위기에 폭 빠져들게 하면서 동시에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흥겨움으로 인도한다.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넘나드는 강허달림의 진솔한 무대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만나본다.

KangHuh Dalrim's music is full of her own unique energy with which traces of frustration and pains are overcome through vigorous rhythm. Her songs, with messages of hope, allow her audiences to become immersed into a sentimental atmosphere, and lead them into a sea of delight with their shoulders bobbing along to the music. You'll see her authentic stage crossing over various genres of music at Sori Festival.

협연자

가야금 배유경



해설이 있는 수제천

(사)정음수제천보존회

Sujecheon With Commentary

Preservation Committee Of Sujecheon

10.01 금 19:00 야외공연장

1st Oct (Fri) 19:00 Outdoor Theater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는 수제천보존회

해설을 통해 보다 쉽게 만나는 수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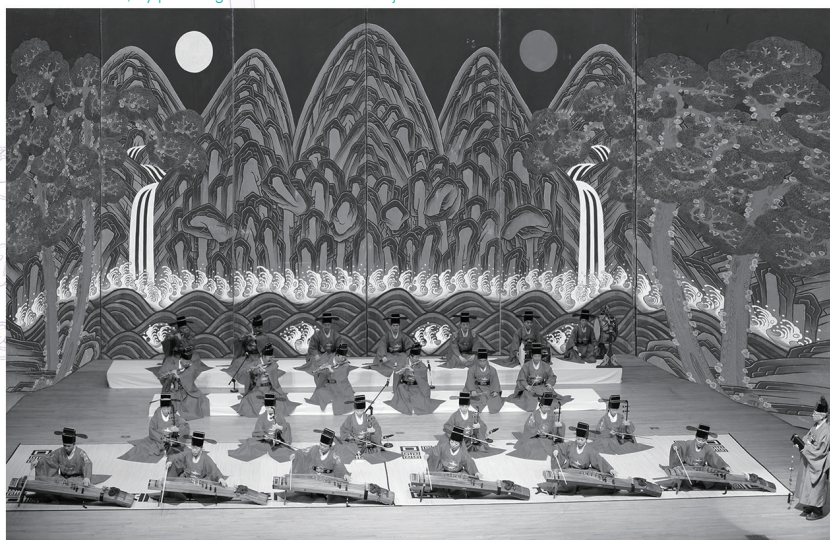
Preservation Committee of Sujecheon continuing the spirit of traditional music

Easily accessible Sujecheon through close commentaries

사단법인 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는 1996년 수제천 연주교실로 시작해, 이후 수제천연주단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2013년 수제천보존회를 설립했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국제민족음악 교류제,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여 국내외 석학들의 수제천에 관한 논문발표와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을 국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해설을 통해 보다 쉽게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The Sujecheon Preservation Committee (Director, Lee Yeongja) began as Sujecheon Performance Class in 1996, then later expanded its range of activity as 'Sujecheon Performance Company', and finally established the preservation committee in 2013. By hosting regular concerts, international ethnic music exchanges, and academic seminars every year, they are working hard to expand opportunities to exchange and publish ideas on Sujeche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They also promote Korean traditional music to foreign countr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performers. This year, they plan to make it easier to reach the audience, by providing commentaries at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해설 환경제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

Africa Overland

10.03 일 17:00 야외공연장
3rd Oct (Sun) 17:00 Outdoor Theater

무한한 음악세계가 이끄는 아프리카 여행
음악과 이야기가 재현하는 세렝게티의 초원

A world of music on a journey into Africa
Serengeti Grasslands, where music and stories are recreated

가수 하림이 아프리카를 오가며 만든 20여 곡의 노래를 다섯 명의 뮤지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음악으로 완성해 나가는 여행 이야기인 이 공연은 아프리카에 기타를 보내는 '기타 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각각의 노래 가사는 하나의 여정이 되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듯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한다. 노래를 따라, 이야기를 따라 미소 짓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어느새 세렝게티 초원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에 젖을 것이다.

It is time to listen to 20 songs composed by the singer Hareem while visiting Africa, and played by five musicians. The performance, a travel story that is completed by music, is also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uitar for Africa" project to send guitars to Africa. Each lyric of the song becomes a part of the journey and presents the moments for the audience to feel as if they are in Africa. When you smile or weep following the songs and stories, you will feel you are yourself walking on the great grasslands of Serengeti National Park.



전주세계소리축제X 전북 CBS 별빛콘서트

Jeonju Int'l Sori Festival
X JEONBUK CBS Starlight Concert

9.30 목 19:30 모악당
30th Sep (Thurs) 19:30 Moak Hall

소리로 하나 되는 가을밤의 특별한 콘서트

'Special Concert' on an autumn night
where all become one through 'sori'

매해 소리축제를 통해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무대를 선보이는 별빛콘서트. 올해는 특별히 관객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한다. 9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명실상부 최고의 보컬 그룹 빅마마, 깊이 있는 목소리, 울림 가득한 창법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하동균, 매력적인 목소리 하진의 공연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에 대한 갈증 해소와 함께 가을밤 소리축제의 한 컷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물한다.

'Starlight Concert' presenting the stage of pop music artists through the Sori Festival every year. This year, singers will get a little closer to the audience. The superb vocal group Bigmama returns as a complete group after nine years, Ha Dong Qn with a deep voice and a vocal full of echoes, and Hajin's fascinating voice will present wonderful performances. Along with the purpose to quench thirsts for performanc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y will fill a corner of the Sori Festival on a fall night to present big impressions to the audience.

빅마마 Bigmama

박민혜, 신연아, 이영현, 이지영으로 구성된 4인조 그룹. 호소력 짙은 보이스, 압도적인 가창력, 완벽한 하모니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9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빅마마가 신곡을 통해 다시 한번 명실상부 최고의 보컬 그룹임을 대중들에게 확인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A group of four singers : Park Minhye, Shin Yeona, Lee Yeonghyeon, and Lee Jiyeong. With their appealing voices, overwhelming vocals, and perfect harmony, they quickly became very popular immediately following their debut. It is expected that Bigmama, who has returned as a complete group after nine years, will once again surely show the public that they are a top vocal group with their new songs.



하동균 Ha Dong Qn

국내 대표 허스키 보이스 아티스트. 대표곡 '그녀를 사랑해줘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음악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OST,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Korea's leading husky voice artist. Not only his representative song 'Dear. My Lover's Love', but also other songs are receiving great love, and drawing positive responses.

He has been steadily active appearing on music programs such as "Immortal Songs" and "I am a Singer." Recently, he has released drama OSTs and remakes albums, entertaining the public's ears with his active endeavors.

하진 Hajin

스카이캐슬의 유명 OST곡 'We all lie'를 통해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

JTBC 싱어게인 경연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500만 뷰를 달성한 바 있다. OST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Artist Hajin received great interest and love through 'We All Lie', the famous OST of 'Skycastle'. The song sung at JTBC's 'Sing Again', a competitive performance, recorded 25 million views through YouTube. Not only through OST songs, but she will also surely excel in various genres.



폐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열전)

Closing Performance

10.03 일 19:00 야외공연장

3rd Oct (Sun) 19:00 Outdoor Theater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유튜브 생중계

Live on YouTube

20

예술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엮은 총체
2021 전북의 음악가들, 무용과의 만남 시도

All Artists' Capabilities Unified as One

Artists from Jeonbuk and dancers strive to meet i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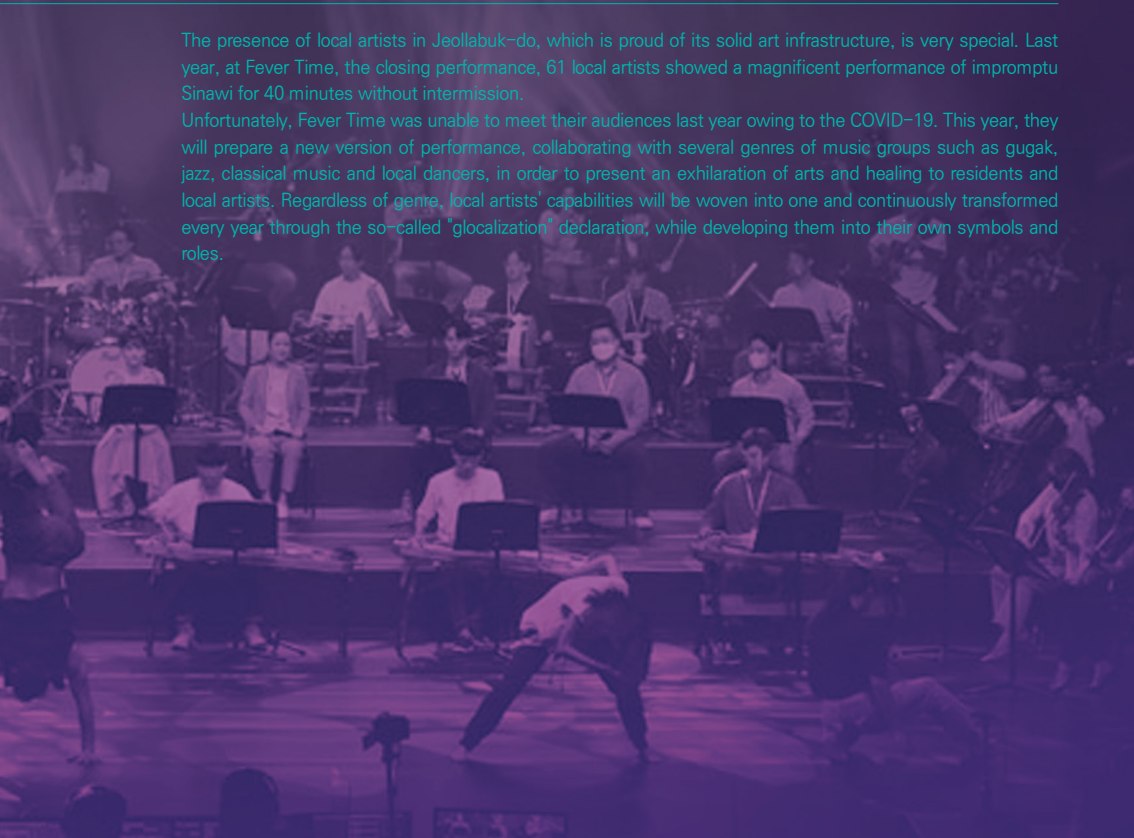
탄탄한 예술적 자산을 가진 전라북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 지난해 폐막공연 ‘전북청년 음악열전’에서는 61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40분 동안 쉼 없는 즉흥 시나위를 통해 선보인 집단 퍼포먼스는 지역 예술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으며, 큰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컸던 ‘전북청년음악열전’이 2021 새로운 버전으로 탈바꿈해 관객과 직접 만난다.

국악, 재즈, 클래식 등 여러 장르 음악 단체와 전통, 현대, 비보잉 등 지역 무용인들이 연합 무대를 꾸미며,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신명과 치유의 힘을 선보인다. 장르를 막론해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엮어 이른바 ‘글로벌리즘’의 선언을 통해 매년 이를 꾸준히 변주해 나가는 동시에, 소리 축제만의 독자적인 상징과 역할로 발전시켜 나간다.

The presence of local artists in Jeollabuk-do, which is proud of its solid art infrastructure, is very special. Last year, at Fever Time, the closing performance, 61 local artists showed a magnificent performance of impromptu Sinawi for 40 minutes without intermission.

Unfortunately, Fever Time was unable to meet their audiences last year owing to the COVID-19. This year, they will prepare a new version of performance, collaborating with several genres of music groups such as gugak, jazz, classical music and local dancers, in order to present an exhilaration of arts and healing to residents and local artists. Regardless of genre, local artists' capabilities will be woven into one and continuously transformed every year through the so-called "globalization" declaration, while developing them into their own symbols and roles.



폐막공연 Fever Time

Closing Performance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음악 단체와 무용팀이 만나 별이는 한바탕. 소리 위에 덧입혀지는 움직임의 통해 장르의 경계를 지우고 새로운 장면을 만든다. 무대 위의 출연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드는 Fever Time. 코로나로 인해 지친 지역민과 예술인에게 넘치는 열정을 선사한다.

A round where traditional music and dance teams of this region will collaborate. Through the movement of sori, they erase the borders between genres and create new scenes. It's Fever Time that makes all the cast on the stage one. They present a powerful passion to locals and artists exhausted due to the Covid virus

<벃노래>

A Sailor's Song

라스트포원

Last For One

X

타악그룹 동남풍

Dongnampung,
a percussion group

<석양>

Sunset

프로젝트 담다

Project Damda

X

가악프로젝트

Ga-ak Project



비보이와 사물놀이만의 만남. 각 분야의 고수로 자리매김한 두 팀이 수년간 협업해온 안정적인 팀워크가 돋보이는 무대를 선물한다. 신명나는 사물 장단과 함께 비보이들의 자유분방한 몸짓을 만나볼 시간.

The encounter of B-boys and a samulnori team. The teams which are considered the best of the best in their fields will present a special show created with stable teamwork by years of collaboration. It's time to enjoy the exciting beats of 'samul' and free acrobatic dance of B-boys

코로나극복프로젝트 1919챌린지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전북 현대 무용계의 반가운 존재 '프로젝트 담다'가 2019 소리프론티어 소리축제상을 수상한 가악프로젝트와 호흡을 맞춘다. 소리축제를 거처온 젊은 국악과 굿직한 움직임의 만남이 펼쳐진다.

'Project Damda', a new star of the Jeonbuk modern dance industry which has been very active since '1919 Challenge', a project to overcome the pandemic, keeps tune with 'Ga-ak Project' winner of Sori Festival in the 2019 Sori Frontier. There will be a wonderful encounter of young gugak testified at Sori Festival with big movements.

<군악>

Martial Music

지무단

Jimudan

X

타악연희원 아귀

Percussion & Play Institute A-KWI



전통 무예와 검술을 토대로 예술적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지무단과 타악 퍼포먼스의 달인 아귀의 첫 협업 무대.

대북과 모듬북의 강렬함과 검무 퍼포먼스의 다이내믹함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The first collaborative stage of Jimudan, who create artistic performances based o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swordsmanship, and A-KWI, a master group of percussion performance. The strength of a large drum and modeumbuk (for nanta) and dynamics of swordsmanship performance are enough to catch audiences.

<영인(伶人) Blues>

Yeongin Blues

두(頭)Do댄스

DoDance

X

안태상프로젝트

Ahn Taesang Project

X

드럼 신동진

Drum Shin Dongjin



두댄스를 지역 이야기를 발굴해 춤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무용단체다. 이번 폐막 공연에서는 전주 인디음악계를 든든하게 이끄는 안태상 프로젝트의 안태상, 베이스 정보민 건반 정영광과 함께 재즈드러머 신동진과 협력하여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시도한다.

DoDance is a dance company that has been working steadily on discovering local stories and unraveling them through dance. In the closing performance, Ahn Taesang who leads the Jeonju Indie music industry, and Shin Dongjin, a jazz drummer, will collaborate to create a modern performance

<해아>

Haeya

넬마루무용단

Neolmaru Dance Troupe

X

주스프로젝트

Ju's Project



판소리, 전주부채, 논개 등 다양한 역사적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전통춤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넬마루 무용단과 남원 대표 음악단체 발라드 판소리꾼 김대일과 기타리스트 박석주가 이끄는 '주스프로젝트'가 함께한다.

The Neolmaru Dance Troupe, which reinterprets various historical,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such as Pansori, Jeonju fans, Nongae as traditional dances, will collaborate with Namwon's representative music group, Ju's Project music that ballad Pansori artist Kim Daeil and guitarist Park Seokju lead.

찾아가는 소리축제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10.06~10.20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연 기회

국내 우수한 공연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용의 폭 확장

Various performance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xpanding the breadth of acceptance of culture and arts with more superior shows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함께 추진하는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 찾아가는 소리축제. 전라북도 소재 14개 시·군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며 국내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A co-project of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JISF to find future audiences. Performance teams visi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14 cities and counties of Jeollabuk-do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performances for kids and young audiences. Encourag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at have been slowed dow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access excellent cultural contents for the younger generation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상상력 극장 <삼양동화>

Imagination Theater
Samyang Fairy Tale

해의 아이들

MJ Planet



백마 탄 왕자님, 나쁜 새엄마...
고정관념 없는 동화, 어디 없을까요?

Prince Riding a White Horse, Bad Stepmother....Aren't there any fairy tales free from stereotypes?

10.12(화) 10:30 순창 금곡초등학교
10.13(수) 10:30 익산 여산초등학교
10.14(목) 10:30 정읍 정읍초등학교
10.15(금) 10:30 군산 새만금초등학교
10.19(화) 10:30 김제 백구초등학교

<판타스틱 앨리스>

Fantastic Alice

포스댄스컴퍼니

Force Dance Company



이상한 나라에도 다양한 개성이
공존할 수 있을까

Can it be possible for a variety of
personalities to co-exist in Wonderland?

10.12(화) 10:30 남원 인월초등학교
10.13(수) 10:30 완주 고산초등학교
10.14(목) 10:30 장수 한누리전당
(장수군 초등학교 연합)
10.19(화) 10:30 전주 원동초등학교
10.20(수) 10:30 부안 행안초등학교

<이야기 파시오>

Sell Stories

극단 마루한

Theater Maruhan



상상력과 즐거움이 담긴 사물가락
유쾌한 어린이 마당 인형극

Melodies of 'Samul' (four instruments)
filled with imagination and pleasure
A delightful children's 'madang' puppet
show

10.7(목) 10:30 임실 임실기림초등학교
10.8(금) 10:40 무주 괴목초등학교

<하림&블루카멜 앙상블>

Hareem & Blue Camel
Ensemble

해설 신경아



여행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만나는 음악 여행자
하림&블루카멜 앙상블

Together on a musical journey, Hareem
& Blue Camel Ensemble
They meet various music of the world on
their journey

10.6 (수) 13:30 고창 영선고등학교
10.19(화) 13:30 부안 부안중학교
10.20(수) 10:30 진안 안천 초·중·고등학교

STAFF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스태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김 한**

집행위원장 **박재현**

부위원장 **심인택** 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부위원장 **최동현** 군산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상임위원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상임위원 **지성호** 작곡가

외부감사

오용규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조직위원

김국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 차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변주승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유춘택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

이기선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부교수

이영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내부감사)

정진욱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위원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노복순 국악평론가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부교수

이희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조세훈 남원농악보존회 기획실장

이경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국장

오선진 방송 프리랜서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제작감독

최성엽 JTV(전주방송)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 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이윤주 차장

조윤지 팀원

조현정 팀원

김지환 팀원

김구희 인턴

무대팀

전선호 팀원

안지웅 팀원

대외협력부 || 홍보팀 행사팀

김희경 부장

홍보팀

이조은 팀장

이지환 팀원

전원준 팀원

박민영 팀원

신민영 팀원

행사팀

김경훈 팀장

구국희 팀원

이수현 팀원

행정팀

조현철 팀장

최다미 팀원

이미란 팀원

전라북도문화예술과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관 문화예술과장

윤효선 예술지원팀장

이성범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작진

무대총괄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최형범 김응완 임규호

사이트매니저

허 정 김성민 이정연 이은주

박선주 한세윤 김민준 김정현

행사운영

김동인 김수민 이동훈 채동석

유지훈 오기정

음향

이동욱 백영빈 김래영 김 율

이석재 이재일 임희준 이성조

박준혁

조명

임재덕 이주호 이정민 유주형

오세혁 문필건 윤세진 정호진

신 희 김희관 김유진 송인훈

최정안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작진

무대

배정섭 배운섭 김진옥 배종권
배종우 어윤호 정진백 유민석
함영규 마정석 반상윤

무대디자인

김대한 김종환

영상팀

우기하 최석주 모용우 전용곤
조용윤 임다빈 김동환 김경상
최미경 배서진 이정민 양혜린

중계팀

변재범 최승준 김기정 신윤철
이진현 성용창 김상수 배진환
홍지훈 전영신 이태우 변기원

LED팀

이성희 안정선 최병욱 정대수
김승현 이지주

구조물

노강섭 권순문 오찬식

온라인중계

고재훈

발전기

박종철

약기

배종두 김서학 김민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TAFF

경영관리부

한홍민 부장
정범수 과장
임익중 과장
이동수 과장
최미송 이성윤 유민정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과장
유경희 과장
이안나 대리
강성웅 대리
김미라

기계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무대팀

김지현 대리
한승주 장오성 연혁찬 안승주

음향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이동수 조종호

조명팀

장정규 과장
박성진 과장
송두영 대리
정택진 김찬웅

고객지원부

강현규 부장
권희원 과장
김미미 과장
안은홍 합지수 송한별

소리천사

상황실

김서현 김예진 김은지 신지연
이진서 차재원 최세연 최하람
황정용

방역안내A

김민재 김윤주 김정연 손병권
오희진 이진완 정서윤 정인수
최현서 홍민표

방역안내B

김도연 김도원 김철민 박재현
백경현 이은솔 이효민 정초윤

행사지원

김규식 박명지 박수환 박찬현
서성민 서준기 서하진 오임경
이재찬 이정민 임가현 정상미
최은숙 한수아 한영진

모악당 연지홀

김영원 박준형 박찬호 박재웅
박햇살 서광덕 서우진 이요한
이현경 장수혁 정수민 조우정
한선주 한진석 홍진호

야외공연장

김명근 김예서 김혜원 박나영
이동하 이슬기 이우석 임성훈
주하림

명인홀

김진구 손주인 송수민 유예빈
이동준 정주연 조다은 최진혁

